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연구』

— 고구려 연구의 새로운 공간을 확장하다

윤성호 |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조교수

- I. 머리말
- II. 내용의 구성과 특징
- III. 연구사적인 의미와 향후 과제
- IV. 맺음말

www.kci.go.kr

I. 머리말

사료를 중심으로 전근대부터 고구려 연구는 계속되어왔으나, 19세기 말 광개토왕비의 조사 이후 고구려 연구는 고고학 자료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중국과 북한 지역의 고구려 유적을 직접 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학계의 고구려 연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내 학계에서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가 미진할 수밖에 없던 시기에 북한 학계는 고분을 중심으로 조사와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국 학계를 중심으로 고구려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80년대에 북한 학계에서 압록강 이북과 이남을 나누어서 사료에 등장하는 265개소의 성곽과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79개소의 성곽 자료를 정리한 연구서가 나오기도 하였다.¹

이 무렵인 1979년에 중원고구려비가 확인되면서 우리 학계의 고구려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으나, 여전히 중국과 북한 학계의 자료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²

그런데 냉전 시기가 종식되고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부터 중국의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고구려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유적과 관련 자료를 직접 입수하면서

1 채희국, 1985, 『고구려력사연구-고구려건국과 삼국통일을 위한 투쟁, 성곽-』,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 고구려 고고학 연구의 시기를 제1기(1895~1945), 제2기(1946~1973), 제3기(1974~1994), 제4기(1994~현재)로 구분한 견해가 연구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25~44쪽.

연구가 용이해졌다.³ 또한 연구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면서 관련 자료와 연구가 축적되었다.⁴ 1993년에 “아! 고구려 1천 5백년 전 집안고구려벽화” 특별전이 개최되고 관련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연구자를 넘어서 고구려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까지 증가되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 연구는 활성화되었지만,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는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⁵ 단편적으로 보고된 자료나 입수하기 힘든 자료들을 모두 파악하여, 의미를 추출하는 것은 개인적인 연구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다.

남한 지역에서도 1988년에 몽촌토성 출토 유물 중 고구려의 토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⁶ 지표조사를 통하여 한강 북쪽에 인접한 아차산 일대에 고구려의 보루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을 1994년에 확인하였다. 1997년에는 아차산 4보루의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최근까지 고구려 보루 유적에 대한 조사가 꾸준히 진행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주목해야만 하는 연구가 있었다. 현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인 국방군사연구소에서 1998~1999년에 2권으로 간행한 『고구려성』이다. 이 책은 중국 소재 고구려 성곽을 국내에서 정리한 선구적인 연구라고

3 李殿福 著, 車勇杰·金仁經 譯, 1994, 『中國內의 高句麗遺蹟』, 學研文化社.

4 徐吉洙, 1995, 「松花江 流域의 高句麗 山城 研究-제2송화강 중류 吉林市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1. 현재 고구려발해학회의 전신인 고구려연구회가 조직된 이후 중국 지역의 고구려 성곽에 대한 관련 논고들이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5 일본학계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고구려 유적을 정리하려는 시론적인 시도가 있었다. 여기서는 중국 경내 87개소, 한반도에 71개소의 고구려 성곽의 수를 집계하였다(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본 연구서를 국문 번역서로 간행하였다. 東潮·田中俊明 著, 동북아역사재단 역, 2008,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6 최중택, 1995, 「漢江流域 高句麗土器 研究」, 『韓國考古學報』 33; 崔鍾澤, 1999, 「高句麗土器研究」, 서울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

할 수 있다.⁷ I 권 압록강 중상류역 편에서는 집안, 환인, 신빈, 통화, 임강, 장백 지역의 성곽 38개소를 정리하였다. II 권 요하유역 편에서는 소자하 유역, 혼하 유역, 태자하 유역, 해성·개주 지역, 범하~구하 유역, 동요하 유역의 성곽 43개소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중국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접근이 시작단계인 상황에서 총 81개소의 성곽을 분석한 의욕적인 저서는 고구려 성곽과 교통로를 분석함으로써 입체감 있는 연구를 가능케 해준 기초자료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아직 중국 학계에서도 고구려 성곽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자료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후 추가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개별 연구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2010년대 이후 중국 학계에서 고구려 성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가 축적되었고, 관련 연구도 증가하였다.⁸ 이러한 추가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심화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2016년에 『고구려 성 연구(高句麗 城 研究)』, 2017년에 『고구려 산성 연구』의 고구려 산성 연구서 두 권이 간행되었다.⁹ 두 연구서는 한반도와 중국 소재 고구려 성곽 자료를 집대성하고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고구려 성 연구』에서는 중국 소재 고구려 성 153개소, 북한 소재 고구려 성 47개소, 남한 소재 고구려 성과 보루 48개소를 표로 정리하였다.¹⁰ 물론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분량의 한계

7 여호규, 1998, 『高句麗 城』 I -鴨綠江 中上流域編; 여호규, 1999, 『高句麗 城』 II -遼河流域編-, 國防軍事研究所.

8 중국 학계의 연구에서 압록강을 기준으로 중국 소재 주요 고구려 성곽 37개소의 현황을 정리하고, 총 104개소 성곽을 표로 정리한 연구가 있다(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118~124쪽). 북한 학계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고구려 성곽으로 환인 일대, 집안 일대, 단동 일대, 철령·심양·무순·본계 일대, 요동반도 일대, 길림시 일대, 연변 일대로 구분하여 73개소를 정리하고, 북한지역의 성곽 46개소를 검토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조선 고고학전서』 27(중세편4) 고구려의 성곽, 진인진.

9 양시은, 2016, 『高句麗 城 研究』, 진인진;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0 해당 자료는 고구려 성 목록으로 고구려 고고학 개설서(강현숙·양시은·최종택,

로 인하여 세부 유적과 유물에 대한 자료집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의 경우에는 대체로 벽화고분에 대한 분석이나, 묘제를 중심으로 주요 유적을 검토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고분의 분포 양상에 대한 정리는 상당히 늦게 이루어진 편이다.¹¹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5개년에 걸쳐 고구려-발해 유적자료집 발간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물 중에서 『고구려의 고분문화』 3권이 자료집의 형태로 간행되었다.¹² I 권은 한반도 지역의 자료를 정리하였고, II~III권이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 자료이다. II 권은 길림성 집안시 통구의 고분군 6개소, III 권은 통구 분지를 제외한 길림성·요령성 일대 92개 고분군을 대상으로 고분 자료를 정리하였다. 조사연혁, 위치, 입지, 조사현황, 내용 및 성격, 유물, 참고문헌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이 책은 자료집으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고분과 유물 도면 외에 해당 고분의 위치도나 관련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한 분석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분포 양상을 확인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범위의 문화유적분포지도와 같은 유적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간행되었다. 그런데 기왕에 간행된 고구려 관련 연구는 이에 비해서 일정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하여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집을 제작한 성과는 마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집필 전후 한국학의 발전만큼이나 한국고대사와 고고학 연구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2020, 앞의 책, 366~385쪽)에 수정하여 게재되었다.

- 11 발굴조사를 통하여 실측이 이루어지고 유물이 확인된 자료의 검토 과정에서 주요 고분 75기에 대한 현황을 표로 정리한 연구(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630~634쪽)가 확인된다.
- 12 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고구려의 고분 문화』 II -길림성 집안시 통구고분군-; 중앙문화재연구원, 2016, 『고구려의 고분 문화』 III -길림성·요령성 일대-.

그렇다면 이제 장을 바꾸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의욕적으로 간행한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자.

II. 내용의 구성과 특징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2007년부터 지리적으로 중국에 소재한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을 집대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서적을 간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2009~2010년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고구려 문화권 전체를 범위로 고분과 성곽을 포함한 주요 고구려 유적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자를 간행한 바 있다.¹³

1권은 고구려의 도성과 성곽을 중심으로 정리가 진행되었다. 고구려 도성의 경우 ① 환인지구, ② 집안지역, ③ 평양지역로 구분하였고, 성곽은 ① 압록강 중상류, ② 혼하-요하 중상류, ③ 태자하-요하 하류, ④ 압록강 하류-요동반도, ⑤ 길림-연길지역, ⑥ 북한지역, ⑦ 남한지역으로 나누어 관련 조사현황, 도면, 사진 자료를 제공하였다. 반면에 고구려 고분의 경우에는 구조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적석총, 봉토석실분, 벽화고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지역별 배치 현황이나 특징으로 고찰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을 통하여 고분군 246개소, 기타 개별 고분 269기, 성곽 301개소, 성곽의 개별 유구 31기, 기타 관련 유적 40개소와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된 84건의 자료 등 총 971건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지역별 현황이

13 동북아역사재단, 2009,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1 -도성과 성곽-; 동북아역사재단, 2010a,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2 -고분과 유물-.

나 유구별 특징과 같은 내용을 모두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결국 이 책을 자료집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도 일정한 한계가 지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2018년에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자료집의 형식을 갖추어 출간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연구책임자는 1998~1999년에 『고구려 성』을 집필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여호규 교수가 담당하면서 성과 부분의 집필을 담당하였다. 공동연구원으로 고구려 고분 연구의 권위자인 동국대학교 강현숙 교수가 고분을 담당하였다. 성과와 고분의 유물 관련 내용은 고구려 보루와 관방체계, 기와 등 유물을 꾸준히 연구해온 한국교통대학교의 백종오 교수가 담당하였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종은, 이정미, 정동민 연구원은 기왕에 간행된 보고서, 연구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도와 지도, 보도자료, 답사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연구진이 집필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권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¹⁴

- I. 압록강 중상류 1 환인
- II. 압록강 중상류 2 집안-신빈
- III. 압록강 중상류 3 통화-백산·임강-장백
- IV. 통구분지 1 우산하·하해방·만보정·칠성산고분군
- V. 통구분지 2 마선구·산성하고분군, 벽화고분
- VI. 통구분지 3 성곽, 기타 유적, 유물

14 동북아역사재단, 2020,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I -요동반도-태자하유역-;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II -혼하-요하 중상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X -심양 석대자산성-;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X -송하강-묵단강-두만강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2021,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 -압록강 중상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I -환인-; 동북아역사재단, 2022,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II -압록강 중상류-;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IV -통구분지 1-;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 -통구분지 2-;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VI -통구분지 3-.

- VII. 요동반도-태자하유역
- VIII. 혼하-요하 중상류
- IX. 심양 석대자산성
- X. 송하강-목단강-두만강 유역

10권으로 구성된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은 지역별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이 3권(I~Ⅲ권), 통구분지가 3권(Ⅳ~Ⅵ), 요동반도 및 요하-송하강-두만강 유역을 4권(Ⅶ~Ⅹ)으로 묶었다.

압록강 중상류 지역은 고구려 초기의 도읍인 환인 지역을 I 권으로 구성하고, 두 번째 도읍인 국내성지 주변 지역(집안현, 신빈현)을 Ⅱ 권으로 구성하였다. 기타 나머지 국내성지 주변 지역(통화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현)을 Ⅲ 권으로 묶었다.

국내성지의 중심에 해당하는 통구분지 지역에는 가장 많은 수의 고분군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국내성지와 산성자산성과 같은 도성 유적이 위치한 관계로 관련 유구와 유물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지역을 3권으로 구성하였다. 통구분지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산하, 하해방, 만보정, 칠성산 고분군과 산성자산성 인근의 마선구, 산성하고분군을 별권으로 구성했으며, V 권에서 벽화고분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내성지의 경우 고분과 산성 외 도성 유적과 도성 내부의 건물지 등이 다수 확인되므로 Ⅶ권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사방으로 팽창해나갔던 흔적들은 Ⅶ~Ⅹ권에 배치하였다. 해당 지역에서는 고분군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발굴조사된 고분의 수도 부족하다. 이에 성곽을 중심으로 관련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요동반도와 태자하 유역(단동시, 봉성시, 관전현, 동항시, 대련시, 와방정시, 장하시, 보란점시, 영구시, 개주시, 대석교시, 안산시, 해성시, 수암현, 요양시, 등탑시, 요양현, 본계시·현, 신빈현)의 유적은 Ⅶ권으로 정리하고, 중국 세력과 경계를 이룬 요하 중상류(무순시, 신빈현, 청원현, 철령시·현, 개원시, 서풍현, 요원시, 공주령시)의 자료는 Ⅷ권에서 정리하였다. 특히 Ⅷ권에서 검토한 성곽들은 고구려와 수·당과

의 전쟁 과정에서 사료에 등장하는 다수의 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였다. Ⅱ권은 성곽 중 유일하게 심양 석대자산성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석대자산성은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되면서 환인 오녀산성, 집안 국내성지와 산성자산성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고고학적인 성과가 있었던 산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타 성곽의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된다.¹⁵

마지막으로 X 권은 송하강-목단강-두만강 유역(길림시, 덕혜시, 농안현, 교하시, 만석시, 동풍현, 휘남현, 유하현, 청원현, 정우현, 무송현, 돈화시,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연길시, 도문시, 왕창현, 훈춘시)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검토 자료이다. 해당 지역은 고구려의 왕경에서 북동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고구려의 뒤를 이어 건국된 발해의 중심 지역과 중복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 문화와 발해문화의 양상에 대한 구분과 비교가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각각의 권역에 대한 분석은 공통된 양식에서 세부적인 순서와 목차를 정하여 서술하였다. 각 권역에서 고분군과 고분, 성곽, 유물의 순서로 지역별 개관을 하였다.

I 권에서는 압록강 중상류편 전체 유적에 대한 개관이 앞부분에 배치되었다. 고분군과 고분의 경우 고분군의 분포 양상(지역별 현황)과 고분의 시공적 양상(구조분석)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성곽은 조사현황, 성곽의 입지와 유형, 축성 방식과 성곽 시설, 초기 도성 방어체제와 압록강의 수로 운영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Ⅳ권에서는 통구분지에 대한 개관이 정리되었다. 여기서 고분은 고분군의

15 심양 석대자산성은 국내에서 개별 연구도 다수 진행된바 있다. 徐吉洙, 1999, 「石臺子山城을 통해 본 고구려 산성의 특징」, 『高句麗研究』 7; 李曉鍾, 2001, 「石臺子山城」, 『高句麗研究』 12; 백종오, 2017, 「中國內 高句麗山城의 發掘 現況과 主要 遺構·遺物の 檢討-2005年~2016年 發掘調査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53.

분포 양상과 통구분지 고분의 구조와 특징을 검토하고 조사와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성곽은 건물지와 묶어서 국내성지의 성곽시설과 건물지, 산성자산성의 성곽시설과 건물지, 국내성지 주변 건물지 현황으로 나누어 유적을 정리하였다. 다수의 유물이 확인된 통구분지는 전체 정리현황과 연차별(2009·2010·2011년도) 유물 정리 현황을 제시하였다. V 권은 지역 개관은 아니지만, 집안지역 33기의 벽화고분을 별도로 편성하면서 벽화고분의 구조와 시기별 변화상에 대한 개관을 별도로 서술한 부분도 주목된다.

VII권에서는 압록강 하류-요동반도-태자하 유역에 대한 개관이 서두에 정리되었다. 이곳은 고구려의 영역확대와 교통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39개소의 고분은 압록강 하류-태자하 유역-요동반도 일대의 분포현황과 구조, 시대를 정리하였다. 이 지역에서 3세기 이전 고구려의 기원을 확인하는 고분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 유의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121개소에 달하는 성곽은 세부 해당 지역별로 성곽 분포현황을 검토하였다.

VIII권은 혼하-요하 중상류 지역의 개관으로 시작한다. 이 지역은 고구려의 영역 확장과 중원 세력과의 충돌이 빈번한 지역으로 고분보다 성곽 중심의 조사와 연구가 집중된 곳이다. 고분의 경우 조사 사례가 부족하지만, 지역별 분포와 구조와 시기에 대한 간략한 정리가 이루어졌다. 성곽은 47개소가 분석대상인데 세부 지역별 분포 양상을 검토하였고, 기존 중국 군현성의 재 활용 사례나 고구려-발해 이후 점유 세력의 재 활용 현황 등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임을 강조하였다.

심양 석대자산성의 분석으로 구성된 IX권에는 산성의 현황이나 성격과 함께 주변 고분군에 대한 개관이 제시되었다.

마지막 X 권에서는 고구려의 동쪽 영역인 송화강-목단강-두만강 유역의 개관이 서두에 정리되었다. 이 지역은 고구려 진출 이전의 옥저와 동부여가 자리한 지역이나 명확한 고고학적인 흔적이 드러나지 않으며, 고구려 멸망 이후 발해의 문화가 중복된 곳이기도 하다.

고분의 경우 지역적 분포 양상과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조사가 미

비한 측면이 있지만 고구려 초기 진출 양상과 발해 고분과의 차별성을 확인하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성곽은 수계별로 휘발하 유역-북류 송화강 유역-묵단강 유역-두만강 유역의 성곽 78기의 분포현황을 검토하였다. 성곽도 고분과 마찬가지로 고구려가 초축하고 발해가 재사용한 것인지, 발해의 성인지 또는 발해 멸망 이후 여진이 재촬영한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I·Ⅳ·Ⅶ·Ⅷ·Ⅸ·Ⅹ의 서두에서는 해당 지역별로 고분과 성곽의 분포 범위나 구조적인 특징을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지역별 개관은 기왕에 간행된 어떠한 연구서나 자료집에 비해서도 분석 내용과 향후 과제의 제시가 연구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본 자료집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때 반드시 개관 부분에 대한 정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별 개관 뒤에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시·현) 단위로 고분군과 고분, 성곽, 유물의 순서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지역별로 개별 유적의 검토는 행정 구역별로 유적분포도를 제시하여 수계와 해당 유적의 위치를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였다. 이어서 세부 유적 중 고분군과 고분은 ① 조사현황, ② 위치와 자연환경, ③ 유적 현황, ④ 출토유물, ⑤ 역사적 성격과 참고문헌의 순서로 서술하였다.

성곽은 성벽이나 내부시설물에 대한 고고학 자료의 추가 설명을 위하여 ①~③은 동일하고, ④ 성벽과 성곽시설을 추가하여 후반에 ⑤ 출토유물, ⑥ 역사적 성격과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하였다.¹⁶

개별 유적의 분석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면 자료가 활용되었다. 해당 유적의 위치와 입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입체지형도를 이용하여 해당 유적과 주변 유적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댐 건설이나 도시화로 인하여 개발되기

16 성곽에 대한 검토는 ① 발굴조사 현황, ② 위치와 자연지형, ③ 성벽, ④ 성곽시설과 유적, ⑤ 유물, ⑥ 역사적 고찰의 순서로 분석한 기왕의 연구(여호규, 1998, 앞의 책)에서 시도한 안정적인 목차를 사용하였다.

이전의 지형과 교통로를 파악하기 위해 1930년대 이전에 재판되어 간행된 만주국 10만 분의 1 지형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치도는 독자들의 입체적인 이해를 돕는다.¹⁷ 그리고 본문 내에서 기존 보고서나 연구서에 수록된 고분이나 성곽 유구와 관련된 평면도 등의 각종 도면을 함께 수록하여 독자의 가독성을 높인 것도 구성상의 특징이다.

Ⅲ. 연구사적인 의미와 향후 과제

이 총서는 중국 학계의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연구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특징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선 자료 정리의 기본이 되는 중국 학계의 조사 성과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보고 내용이 약보고 수준에 그쳤거나, 분석을 위한 풍부한 자료까지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외 연구에서 고분, 성곽, 유물의 특징을 규정하는 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총서는 연구진 사이에서 용어의 사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내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관련 자료를 정의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후 관련 고고자료의 연구에도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소재 고구려 고분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상 지역별로 정치하게 자료를 종합한 첫 번째 자료집에 가깝다. 이와 같이 수계에 따른 대범주와 시·현 단위의 소범주에 따라 고분의 분포와 구조를 분석하게 되면서 기왕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연구 주제가 제안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구려의 초기 도성이 위치한 혼강과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서는 고분을 통

17 고구려 초기 도성이 위치한 환인 지역의 경우 혼강에 환인담이 건설되면서 고분과 성곽이 수몰된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국립문서보관소 소장 1960년대 위성사진과 현재의 위성사진으로 지형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던 간행물(고구려연구재단, 1995, 『위성사진으로 보는 고구려 도성』; 서울대학교박물관, 2008,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이 학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하여 고구려의 형성과 성장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석실봉토석실 분과 대형 계단식적석총을 통하여 이 지역의 위상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렇지만 분포된 고분군의 수에 비해 아직 조사된 고분의 비율이 미미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후 조사와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압록강 하류와 요동반도의 경우에는 고구려 적석총의 기원지로 주목되는 곳이지만 실제 조사 성과를 통해서 이를 계기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고구려의 서진과 영역 확장이 이루어진 혼하와 요하 중상류 지역은 의외로 조사된 고분수가 많지 않으며, 가장 대규모 고분군인 무순 시가고분군도 6세기 후반 이후가 중심시기라는 점에서 요동지역 확보와 관련된 사료와 고고학적인 편년에 시간차가 발생함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이른 시기부터 고구려사의 무대로 등장하는 송화강 유역에서도 관련된 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두만강 유역에서도 고구려 고분인지 발해 고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의 지역적인 분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과정이 고고학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확인한 것은 바로 추후 조사의 방향과 연구의 과제들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성곽에 대한 자료는 기왕에 단행본으로 간행된 연구에서 집계한 성곽의 수보다 많은 자료를 다루었다. 사실 연차적인 조사를 통하여 산성의 축조와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가능한 성곽 사례는 많지 않다. 부분적인 조사나 지표조사를 통하여 성벽 축조방식과 내부 출토 유물이나 주변 유적과의 정황을 통하여 고구려 성곽일 가능성이 있다는 선에서 분석된 사례도 많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고구려 멸망 이후의 발해, 여진, 명 등의 세력이 재이용한 흔적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본 총서가 자료집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조사 내용과 다양한 이견이 있는 연구 성과까지 함께 정리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추후 연구의 과제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거쳐 간 다양한 세력의 축조 기술을 이해해야만 고구려의 축성 기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한편, 이 총서에서는 성곽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 기준이 적용

되었다. 현지 명칭을 감안하여 성, 산성, 고성, 성지로 표기하였다. 이와 다른 특수한 성격의 관방시설은 장성, 관애, 초소로 분류하였다. 성곽을 연결한 일종의 2개소의 장성(공주령 노변강 유적, 연변장성), 교통로를 차단하는 11개소의 관애(환인 북부관애, 집안 망파령관애·만구노변장관애·칠개정자관애, 통화 이도구문관애·석호관애, 장백 십이도만관애·십사도구관애, 반석 지방구관애·성자구관애, 관전 백채지관애)와 1개소의 초소(집안 대천초소)가 분석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초소이다. 집안 대천초소의 이칭을 대천초잡으로 표기하였는데, 초소의 성격은 소규모 관방시설인 보루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학계에서 길림성 일대 7개소의 소규모 관방시설을 초잡(哨卡)으로 구분한 연구도 있었다.¹⁹ 본 총서에서는 집안 대천초소(대천초잡)만 초소로 분류하고, 통화 영과포산성, 임강 임성고성, 동마록포고성, 교하 동산산성을 소규모 산성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집안 대쌍안초잡, 유하 포어대초잡은 총서에서는 누락되었다.

주변의 성곽을 보조하는 초잡은 둘레가 100~300m이고, 축성 방식은 대체로 석축 또는 토석혼축이다. 토석혼축 구조는 석축부가 붕괴된 상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체로 요하 중상류 지역에 이러한 소규모 관방시설이 다수 확인되는데, 총서에서는 심양 영반산성을 기능상 석대자산성의 보조성이며, 입지와 규모가 남한지역 보루와 유사하다고 분석하였다.

길림성 일대 초잡도 남한지역의 고구려 보루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거점성으로 운영된 대형 성곽을 보조하는 군사적 성격의 소형성곽, 보루, 초소(초잡)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관련 연구에도

18 국내의 고대성곽도 삼국 간의 길항과정에서 서로 영유하고 수개월간 경유한 경우가 허다하며, 고려-조선시대에 재활동되면서 다시 수개월간 사래도 많다. 연해주 일대가 중심이지만 요하 중상류를 포함하여 여진 세력의 축성과 운영을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白杵勲, 2015, 『東アジア中世城郭-女眞の山城と平城-』, 吉川弘文館). 향후 관련 연구가 심화된다면 고구려 성곽의 축성 기법이나 특징을 구분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 張福有, 2016, 『高句麗古城考鑑』下, 吉林文史出版社.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성곽의 운영과 함께 수반된 군사 통신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견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⁰ 바로 사료에서 확인되는 고구려가 운영하였던 봉수의 존재이다. 국내에서는 조선시대 봉수에서 소급하여 가야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성곽과 봉수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직 중국 소재 봉수 유적 중 명확하게 고구려 유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봉수가 대체로 소규모 성곽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도 필요하다.

한편, 총서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을 뽑는다면, 상세한 수계와 시·현 단위의 유적배치도와 달리 광범위한 범위의 배치도가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유적을 하나의 지도에 담아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교통로나 수계에서 전체 배치 관계를 보여주는 고분과 성곽의 배치도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고분이나 성곽의 도면 자료는 최대한 제시되었지만 사진 자료가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구려 초기 도성이 위치한 환인지역의 경우 혼강에 환인담이 건설되면서 고분과 성곽이 수몰된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국립문서보관소 소장 1960년대 위성사진과 현재의 위성사진으로 지형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던 간행물이 학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²¹ 이러한 초창기의 상황과 다르게 현재는 구글 어스 등을 통하여 위성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미 직접 조사하기 힘든 북한 소재 성곽의 입지와 배치를 파악하는 연구에도 활용 중이다.²²

물론 사진 자료의 누락은 저작권의 문제나 총서의 분량이라는 한계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앞서 간행

20 이성재, 2016, 「최근 조사 자료를 통해 본 중국 소재 고구려 성곽의 운용양상-이해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3.

21 고구려연구재단, 1995, 앞의 책; 서울대학교박물관, 2008, 앞의 책.

22 양시은, 2016, 앞의 책; 윤성호, 2021, 「삼국시대 비열홀 지역 관방시설 연구」, 『白山學報』 121.

한 『고구려성 사진자료집』을 활용하고,²³ 총서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다양한 전
거 자료를 함께 보기를 권장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작인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연구』가 간
행된 배경, 총서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연구사적인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본 총서의 머리말에서 간행에 대한 기대효과를 고구려사와 고구려고고학의
연구의 토대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대국민
역사인식 고취에 중요한 기초도 마련하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본 총서를 읽어나가면 이러한 기대 효과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임을 확
신할 수 있다. 서평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소소한 아쉬운 점을 언급했다고, 총서
의 연구사적인 의의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자료집을 펼치고 관련된 내용을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고구려의 유적 속으로 손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고분자료의 분
석을 통해서 고구려의 문화의 기원과 확산과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
고, 성곽을 통하여 교통로·방어체계·영역 확장·전쟁사 등 다방면으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본 총서를 준비한 연구진들의 노력의 결실은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 기왕에 방대한 자료임에도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한 번에 모으기 힘들었
던 고구려 유적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분석 욕망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총서의 원형을 지나서 이제 화이트홀로 튀어나오게 되었다. 고구려 연구의 새로
운 시대가 열리고, 연구의 공간은 무한하게 확장될 것이다.

23 동북아역사재단, 2006, 『高句麗城 사진자료집』 1 -中國 遼寧省·吉林省 西部-;
동북아역사재단, 2010b, 『高句麗城 사진자료집』 2 -中國 吉林省 東部-.

참고문헌

단행본

- 강현숙·양시은·최중택,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 고구려연구재단, 1995, 『위성사진으로 보는 고구려 도성』.
- 동북아역사재단, 2006, 『高句麗城 사진자료집』1 -中國 遼寧省·吉林省 西部-.
- _____, 2009,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1 -도성과 성곽-.
- _____, 2010a,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2 -고분과 유물-.
- _____, 2010b, 『高句麗城 사진자료집』 2 -中國 吉林省 東部-.
- 東潮·田中俊明 著, 동북아역사재단 역, 2008,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조선고고학전서』 27(중세편4) 고구려의 성곽, 진인진.
- 서울대학교박물관, 2008,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 양시은, 2016, 『高句麗 城 研究』, 진인진.
- 여호규, 1998, 『高句麗 城』 I -鴨綠江 中上流域編, 國防軍事研究所.
- _____, 1999, 『高句麗 城』 II -遼河流域編-, 國防軍事研究所.
- 李殿福 著, 車勇杰·金仁經 譯, 1994, 『中國內의 高句麗遺蹟』, 學研文化社.
- 정원철, 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고구려의 고분 문화』 II -길림성 집안시 통구고분군-.
- _____, 2016, 『고구려의 고분 문화』 III -길림성·요령성 일대-.
- 채희국, 1985, 『고구려력사연구 -고구려건국과 삼국통일을 위한 투쟁, 성곽-』, 김일성
종합대학출판사.
-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 張福有, 2016, 『高句麗古城考鑑』下, 吉林文史出版社.
- 臼杵勲, 2015, 『東アジア中世城郭 -女眞の山城と平城-』, 吉川弘文館.
-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논문

- 백종오, 2017, 「中國內 高句麗山城의 發掘 現況과 主要 遺構·遺物の 檢討-2005年~2016年 發掘調査를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53.
- 徐吉洙, 1995, 「松花江 流域의 高句麗 山城 研究-제2송화강 중류 吉林市를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1.
- 徐吉洙, 1999, 「石臺子山城을 통해본 고구려 산성의 특징」, 『高句麗研究』 7.
- 윤성호, 2021, 「삼국시대 비열흘 지역 관방시설 연구」, 『白山學報』 121.
- 이성재, 2016, 「최근 조사자료를 통해 본 중국 소재 고구려 성곽의 운용양상-이해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3.
- 李曉鍾, 2001, 「石臺子山城」, 『高句麗研究』 12.
- 최종택, 1995, 「漢江流域 高句麗土器 研究」, 『韓國考古學報』 33.
- _____, 1999, 「高句麗土器研究」, 서울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論文.